

# 로자 룩셈부르크의 過少消費說에 관하여\*

金 秀 行\*\*

<目 次>

- I. 머리 말
- II. 룩셈부르크의 問題提起
- III. 룩셈부르크 自身の 再生産表式
- IV. 룩셈부르크의 過少消費說의 影響과 評價

## I. 머리 말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過少消費說 (underconsumption theory)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불황과 공황, 제국주의와 전쟁, 社會福祉制度의 확충 등등을 해명하는 데도 過少消費說은 큰 役割을 하였다. 이러한 過少消費說은 엄격히 定義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질 것이다.

過消費說은 자본주의경제에 관한 하나의 理論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첫째, 不況狀態는 산업순환의 한 국면이거나 일시적인 특수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경제가 다른 相殺要因이 없는 한 당연히 향하여 가는 상태이다. 둘째, 이러한 不況으로 향하여 가는 傾向은 자본주의경제가 「消費財」에 대한 수요부족을 끊임없이 야기시키는 傾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Bleaney(1976, p. 11)].

결국 過少消費說에 의하면, 자본주의경제에서는 消費財에 대한 需要가 그것의 生産(또는 공급)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消費財의 需要를 확대시키는 「外部要因」이 존재하여야만 資本主義經濟는 불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부요인이란 非資本主義的 시장, 전쟁, 資本輸出, 사회복지제도 등등을 가리킨다.

로자 룩셈부르크(1870~1919년)는 20세기 초 자본주의열강들의 帝國主義的 침략과 충돌을 고찰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은 資本主義經濟의 고유한 성격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그는 『資本蓄積』(1913년)에서 자본주의경제의 過少消費傾向을 해명하려고 하였

\* 本論文은 서울大學校 大學發展基金의 支援로 이루어졌음.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으며 그것을 근거로 삼아 非資本主義의 영역들에 대한 침략, 보호관세, 國際貸付, 軍國主義 등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資本蓄積』에 대한 각종 비판에 대답하기 위하여 쓴 『資本蓄積 하나의 反批判』(1915년)에서도 자기의 견해를 계속 옹호하였다.

이하에서는 룩셈부르크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過少消費說을 구성하였는가를 살펴 보고 그의 파스노비설이 그 뒤의 過少消費說에 미친 영향을 간단히 考察하려고 한다.

## II. 룩셈부르크의 問題提起

그에 의하면 資本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條件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 생산에서 剩餘價値가 창조되어야 한다. 둘째, 잉여가치가 貨幣形態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이 실현된 剩餘價値(즉 화폐형태)로부터 새로운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生産手段, 生活手段, 勞動力이 존재해야 한다. 끝으로,

넷째의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새로운 자본과 이것에 의해 생산되는 剩餘價値를 대포하게 될 추가적인 商品量이 실현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화폐로 재전환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再轉換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을 때에만 자본주의적 擴大再生産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Luxemburg(1971, p. 45)].

룩셈부르크는 위의 네 개의 條件 가운데 넷째의 조건을 「절대적으로 必須的인 條件」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새로운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商品들이 市場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상품들에 대상화되어 있는 “새로운 資本과 이것의 剩餘價値를 전부 또는 部分的으로 잃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蓄積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될 것이기”[Luxemburg(1971, p. 44)] 때문이다.

그런데 둘째의 조건과 넷째의 조건은 무엇이 다른가? 넷째의 조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剩餘價値中 資本으로 전환될 부분은 이미 둘째의 조건에 의해 貨幣로 전환되었고 이 화폐는 셋째의 조건에 의해 生産資本으로 전환되었다. 그 다음으로 이 새로운 생산자본에 의해 생산된 商品들이 판매될 것인가 아닌가가 넷째의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만약 이 상품들이 판매되지 않는다면 자본축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둘째의 條件과 넷째의 條件은 상품의 販賣可能性에 관한 한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이 두 개의 조건을 계속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둘째의 조건은 剩餘價値를 포함한 상품들이 판매되는가에 관한 것이고, 넷째의 조건은 實現된 剩餘價値가 생산자본으로 轉換되기 위해서는 새로 생산될 商品의 販路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剩餘價値의 일부는 자본가계급 자신에 의하여 消費財의 형태로 消費된다.…… 그러나 잉여가치의 다른 부분 즉 자본으로 전환될 부분을 대표하는 생산물은 누구에 의해 구매될 수 있는가? 再生産表式(마르크스의 확대재생산포식—인용자)에 의하면, 부분적으로는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운 生産手段을 필요로 하는 資本家들 자신에 의하여,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생산수단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勞動者들에 의하여 購買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매는 생산을 擴大시키는 資本主義的 刺戟이 미리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만약 새로운 노동자들이 새로운 생산수단을 처리하기 시작하였다면, 생산될 생산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났음에 틀림없다[Luxemburg(1971, p. 133)].

여기에서 록셈부르크는 剩餘價値(또는 剩餘生産物) 전체의 실현을 문제삼지 않고 잉여가치 중 자본으로 전환될 部分만을 문제로 삼는다. 그리하여 잉여가치 중 자본으로 전환될 부분은 市場의 擴大가 전제되지 않는 한 판매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시장의 확대는 실현된 剩餘價値의 資本化(즉 자본가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購買하는 것)와는 獨立的이며 그것에 先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고방식은 資本蓄積 그 자체가 시장을 확대시킨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며, 이에 따라 록셈부르크는 非資本主義的 市場의 존재가 자본축적에 必須不可缺한 條件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그런데 위의 문장에 있는 「資本主義的 자극이 미리 존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解釋이 있다. 로빈슨(1971, pp. 20-1)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가들은 자기의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市場이 끊임없이 擴大된다고 확신할 때에만 투자를 행하며 資本의 蓄積이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자본이 생산하고 증가시키는 商品들에 대한 需要가 존재한다는 것, 따라서 그들의 剩餘(剩餘價値—인용자)를 수익성있게 「資本化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로빈슨에 의하면, 「資本主義的 刺戟이 미리 존재하는 것」은 자기의 상품에 대한 需要가 增大하리라는 事前的인(*ex ante*) 예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블리니(1976, p. 191)에 의하여 부연되었다. 그에 의하면, 록셈부르크의 말은 「個別 資本家가 필요로 하는 시장확대를 가리키는데, “여타의 자본가들이 축적할 것이며 그리하여 個別資本家 자신의 追加的인 생산물에 대한 需要를 제공하리라는 예상”이라는 것이다. 블리니는 더욱이 록셈부르크가 「資本主義的 자극이 미리 존재하는 것」이라는 조건을 擴大再生産의 경우에만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개별 자본가의 예상은 單純再生産에서도 作用하며

개별자본가의 「잉터리 예측」은 사회적 總資本의 擴大再生産 뿐만 아니라 단순재생산 또는 縮小再生産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로빈슨과 블리니에 의하면, 록셈부르크가 이야기하는 시장확대의 必要性은 개별자본가의 입장 그리고 더구나 個別資本家の 변덕스러운 예측의 立場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解釋은 자본축적이 시장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록셈부르크가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별자본의 축적은 자기 자신의 生産物에 대한 市場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록셈부르크가 사회적 總資本의 蓄積을 개별자본의 입장에서 취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미 부하린에 의하여 제기된 바 있다. 부하린(1971, pp. 201-2)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록셈부르크의 근본적인 誤謬는 그가 사회적 총자본을 개별자본으로 看做하고 있는 데 있다.……이것 때문에 그는 실현과정이 점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모든 자본가들이 한꺼번에 자기들의 剩餘價値를 실현하여야만 한다면, 그들은 第三者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록셈부르크가 市場의 확대를 강조한 것은 社會的 總資本(즉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 개별자본들의 총체)의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나 個別資本의 立場에서 도출된 것이냐라는 問題가 생기고, 더욱이 그가 社會的 총자본과 個別資本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였는가 하지 못하였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비판은 록셈부르크가 마르크스의 再生産表式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사실상 록셈부르크는 마르크스의 再生産表式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록셈부르크(1971, p. 169)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社會的 再生産過程에 관한 마르크스의 연구는 아담 스미스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이 分析은 여러 가지의 이유들 중에서도 모든 상품의 가격은  $V+S$ 로 구성되어 있다는 스미스의 그릇된 도그마에 부딪쳐 곤란을 받게 되었다. 이 도그마에 대한 批判이 再生産過程에 관한 마르크스의 分析 전체를 支配하였다.

록셈부르크의 지적은 매우 올바르며,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社會的 總資本의 再生産을 분석할 때 剩餘價値의 생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傾向들(예를 들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잉여가치율의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록셈부르크는 마르크스의 이러한 分析方法을 비판하면서 자기 스스로 재생산표식을 再構成하게 된다.

그리고 록셈부르크가 個別資本과 社會的 總資本을 혼돈하였다는 비판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록셈부르크(1971, p. 349)는 말한다.

개별자본의 再生産은 사회적 總再生産의 하나의 要素이며 前者는 여타의 요소들의 운동과는 반대로 獨立的인 과정을 따른다. 그러므로 사회적 총자본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자본들의 개별적인 운동들을 단순히 합제하는 것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前者는 後者와 본질적으로 相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개별자본가는 자기의 商品을 노동자에게 販賣함으로써 자기의 剩餘價値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본가계급 전체는 總生産物을 노동자들에게 판매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수요는 총생산물 중 可變資本의 價値에 해당하는 부분만에 局限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록셈부르크는 개별자본과 사회적 총자본을 올바르게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資本主義的 刺戟이 미리 존재하는 것」은 개별자본의 시장예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에 대한 시장의 事前的 擴大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부하린의 批判——즉 록셈부르크는 “모든 資本家들이 한꺼번에 자기들의 잉여가치를 實現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록셈부르크는 非資本主義的 市場의 필요성을 논증하면서 마르크스의 재생산표식을 재구성할 때 분명히 販賣者로서의 자본가와 購買者로서의 자본가 사이의 相互交換關係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록셈부르크가 부하린이 제시한 오류를 범하였다면, 록셈부르크가 제기한 實現問題는 사회적 總生産物에 관련되어야 하며 剩餘生産物中 자본으로 전환될 부분에만 관련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록셈부르크의 논의는 새로운 각도에서 해명되어야만 한다.

스위지(1968, p. 204)는 록셈부르크의 問題提起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내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확대재생산을 논의하면서 록셈부르크는 묵시적으로 單純再生産의 假定들을 維持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소비는 결코 잉여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그의 독단은 可變資本(따라서 노동자의 소비)의 총액이 단순재생산에서처럼 항상 고정되어 있고 不變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이처럼 소비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면, 생산수단을 끊임없이 추가하는 것은 진실로 「부질없는 짓」이 될 것이다.

스위지에 의하면, 록셈부르크가 「純粹資本主義社會」 안에서는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을 때 그는 노동자의 소비가 불변이라고 「默示的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또한 生産財部門(제 1 부문)의 擴大도 무의미한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위지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록셈부르크는 『資本蓄積』 第25章(「擴大再生産表式」 안에

있는 모순들])에서 마르크스의 표식에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삽입하는데, 그 때 그는 노동자들의 소비증대를 도입하면서도 여전히 同一한 結論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록셈부르크의 問題提起는 결코 마르크스의 재생산표식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르크스의 재생산표식을 보다 現實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본주의경제의 각종 傾向들을 삽입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 III. 록셈부르크 自身の 再生産表式

록셈부르크가 제기한 問題는 사실상 마르크스의 再生産表式의 假定들을 修正하면서 자신이 再構成한 재생산표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마르크스는 再生産表式을 작성하면서  $\frac{C}{V}$ 의 불변, 상품가치의 불변,  $\frac{S}{V}$ 의 불변, 제 1부분과 제 2부분의 균등발전, 생산과 소비의 일치 등등을 假定하고 있는데, 록셈부르크(1971, pp. 335-47)에 의하면 이러한 가정들은 『資本論』의 다른 부분들에 있는 「마르크스의 理論」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록셈부르크는 이러한 가정들을 修正하여 자기 자신의 擴大再生産表式을 作成하게 된다. 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rac{C}{V}$ 의 상승과  $\frac{S}{V}$ 의 상승을 명시적으로 導入한다.

이것에 의거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命題를 제시하게 된다.

첫째, 마르크스의 擴大再生産表式에  $\frac{C}{V}$ 와  $\frac{S}{V}$ 의 상승을 도입하게 되면 均衡(제 1부분과 제 2부분의 생산물에 대한 需要와 供給의 균형)이 破壞된다. 둘째,  $\frac{C}{V}$ 와  $\frac{S}{V}$ 가 상승하면서도 均衡條件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제 2부분에 비하여 제 1부분이 상대적으로 빨리 성장하여야 하며, 그리고 제 2부분의 자본가들은 잉여생산물 중 점점 증대하는 부분을 個人的으로 소비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의 증대는 자본주의적 生産의 목적과 矛盾된다. 그리하여 제 2부분의 자본가들은 잉여생산물(소비재형태)의 보다 큰 부분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지만 자본으로 전환될 追加的인 잉여생산물에 대한 需要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추가적인 잉여생산물은 자본주의사회의 외부로 販賣될 수밖에 없으며, 非資本主義的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購買者들에게 판매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개의 명제를 그의 재생산표식으로부터 도출하여 보자.

그는 <表 1>과 같은 마르크스의 擴大再生産表式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 1부분과 제 2부분이 매년 동일하고 不變인  $\frac{C}{V}$ ,  $\frac{S}{V}$ , 資本蓄積率을 나타내고 있다. 록셈부르크는 마르크스의 표식 중에서 연간생산물의 규모와 資本蓄積率(50%)을 받아들여

〈表 1〉 마르크스의 擴大再生産表式

		C	V	S	W	SC	SV	SK		
第 1 次 年度	I	5,000+1,000+1,000=7,000 :				417	83	500		
	II	1,430+ 285+ 285=2,000 :				153	31	101		
第 2 次 年度	I	5,417+1,083+1,083=7,583 :				452	90	541		
	II	1,583+ 316+ 316=2,215 :				132	27	157		
第 3 次 年度	I	5,869+1,173+1,173=8,215 :				489	98	586		
	II	1,751+ 342+ 342=2,399 :				143	29	170		
第 4 次 年度	I	6,358+1,271+1,271=8,900 :				530	105	636		
	II	1,858+ 371+ 371=2,600 :				155	30	186		
		$\frac{C}{V}$		$\frac{S}{V}$		$\frac{SC+SV}{S}(\%)$		$\frac{SC+SV}{C+V}(\%)$	$\frac{II}{I} \frac{w}{w}(\%)$	
		I	II	I	II	I	II			
第 1 次 年度		5	5	1	1	50	65	8	11	28.6
第 2 次 年度		5	5	1	1	50	50	8	8	29
第 3 次 年度		5	5	1	1	50	50	8	8	29
第 4 次 年度		5	5	1	1	50	50	8	8	29

註：剩餘價值(S)는 자본가의 개인적 消費(SK), 추가적인 不變資本(SC)과 추가적인 可變資本(SV)에 사용된다.

〈表 2〉 록실부르크의 再生産表式

		C	V	S	W	SC	SV	SK		
第 1 次 年度	I	5,000+1,000+1,000=7,000				429	71	500		
	II	1,430+ 285+ 285=2,000 :				158	26	101		
第 2 次 年度	I	5,429+1,071+1,083=7,583 :				474	68	541		
	II	1,588+ 311+ 316=2,215 :				138	20	158		
第 3 次 年度	I	5,903+1,139+1,173=8,215				522	65	586		
	II	1,726+ 331+ 342=2,399 :				152	19	171		
第 4 次 年度	I	6,425+1,204+1,271=8,900				572	64	635		
	II	1,878+ 350+ 371=2,600 :				167	18	185		
		$\frac{C}{V}$		$\frac{S}{V}$		$\frac{SC+SV}{S}(\%)$		$\frac{SC+SV}{C+V}(\%)$	$\frac{II}{I} \frac{w}{w}(\%)$	
		I	II	I	II	I	II			
第 1 次 年度		5.00	5.02	1.00	1.00	50	65	8	11	28.6
第 2 次 年度		5.07	5.11	1.01	1.02	50	50	8	8	29
第 3 次 年度		5.18	5.11	1.03	1.03	50	50	8	8	29
第 4 次 年度		5.34	5.37	1.06	1.06	50	50	8	8	29

註：〈表 1〉과 同一.

〈表 3〉 需要와 供給의 不均衡

	前年の 供給	今年の 需要	供給不足 (-) 또는 過剩(+)
第 2 次 年度	I 7,000	7,017 (=5,429+1,588)	-17
	II 2,000	1,983 (=1,071+311+500+101)	+17
第 3 次 年度	I 7,583	7,629 (=5,903+1,726)	-46
	II 2,215	2,169 (=1,139+311+541+158)	+46
第 4 次 年度	I 8,215	8,303 (=6,425+1,878)	-88
	II 2,399	2,311 (=1,204+350+586+171)	+88

면서  $\frac{C}{V}$  와  $\frac{S}{V}$  를 修正한다. 즉, 剩餘價值中 자본으로 轉換되는 부분(=새로 추가될 자본)은 불변자본 對 가변자본의 비율이 제 1 차 연도의 6 對 1에서 7 對 1, 8 對 1, 9 對 1로 점차 高度化한다고 가정하며, 剩餘價值率도 100%가 아니고 점점 더 상승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록셈부르크(1971, p.337)가 작성한 재생산표식이 〈表 2〉이다. 〈表 1〉과는 달리  $\frac{C}{V}$  가 증가하고 있으며  $\frac{S}{V}$  도 상승하고 있다.

〈表 2〉로부터 록셈부르크는, 제 1 부문에서는 매년 供給不足의 規模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 2 부문에서는 매년 공급과잉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表 3〉 참조)고 말한다. 이것으로부터 록셈부르크의 첫째 命題가 나온 것이다. 즉, 마르크스의 재생산표식에  $\frac{C}{V}$  와  $\frac{S}{V}$  의 上昇을 도입하면 생산재와 소비재 각각의 需給不均衡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命題는 둘째 命題를 위한 연결고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로부터 받은 연간총생산물의 규모를 그대로 두면서  $\frac{C}{V}$  와  $-\frac{S}{V}$  를 상승시키면 당연히 不均衡이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表 2〉는 확대재생산의 均衡條件  $I_v + I_{sv} + I_{sk} = II_c + II_{sc}$  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록셈부르크(1971, pp. 338-9)도 곧이어서 제 1 부문의 供給不足과 제 2 부문의 供給過剩을 해결하는 方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 1 부문의 자본가들이 그들의 消費를 상대적으로 制限한다면, 제 2 부문의 자본가들은 그들의 개인적 소비를 상대적으로 增大시켜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 1 부문의 蓄積이 가속화된다는 가정은 제 2 부문의 축적이 퇴퇴한다는 가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제 1 부문의 技術的 進歩는 제 2 부문의 기술적 退步에 의해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부문의 供給不足을 해결하게 되면 제 1 부문은 加速的으로 蓄積하게 되고 제 2 부문의 축적은 退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表 2〉를 擴大再生産의 均衡조건에 맞게 修正하면 곧 알 수 있다. 〈表 4〉는 제 1 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록셈부르크의 見解

〈表 4〉 魯賓부르크의 均衡的인 擴大再生産表式

		C	V	S	W	SC	SV	SK		
第 1 次 年度	I	5,000+1,000+1,000=7,000 :				429	71	500		
	II	1,430+ 285+ 285=2,000 :				141	24	120		
第 2 次 年度	I	5,429+1,071+1,083=7,583 :				474	68	541		
	II	1,571+ 309+ 316=2,196 :				109	16	191		
第 3 次 年度	I	5,903+1,139+1,173=8,215 :				522	65	586		
	II	1,680+ 325+ 342=2,347 :				110	14	218		
第 4 次 年度	I	6,425+1,204+1,271=8,900 :				572	64	635		
	II	1,790+ 339+ 371=2,499 :				113	13	245		
		$\frac{C}{V}$		$\frac{S}{V}$		$\frac{SC+SV}{S}(\%)$		$\frac{SC+SV}{C+V}(\%)$		$\frac{I_w}{I_w}(\%)$
		I	II	I	II	I	II	I	II	
第 1 次 年度		5.00	5.02	1.00	1.00	50	58	8.3	9.6	28.6
第 2 次 年度		5.07	5.08	1.01	1.02	50	40	8.3	6.6	29.0
第 3 次 年度		5.18	5.17	1.03	1.05	50	36	8.3	6.2	28.6
第 4 次 年度		5.34	5.28	1.06	1.09	50	34	8.3	5.9	28.1

註：〈表 1〉과 同一.

(뒤에서 논의될 것임)에 의거하여 〈表 2〉 중 제 1 부분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均衡條件에 맞게 제 2 부분의 숫자를 調整한 것이다.

〈表 4〉에 의하면, 제 1 부분의 供給不足이 해결되면 제 2 부분에서는 축적률 ( $\frac{SC+SV}{S}$ ) 이 減退하며 자본성장률( $\frac{SC+SV}{C+V}$ )도 감소한다. 다시 말하면 제 2 부분의 資本家들은 剩餘價値의 점점 더 큰 부분을 個人的 消費에 支出해야만 한다. 제 1 차 年度에 제 2 부분의 자본가들은 잉여가치의 42%를 個人的 消費에 지출하였는데, 제 4 차 年度에는 잉여가치의 66%를 個人的 소비에 지출하여야 擴大再生産이 均衡을 이루면서 進行될 수 있다. 이처럼 제 2 부분의 자본가들이 個人的 消費를 점점 더 擴大시키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에 違背된다고 루셀부르크는 말한다. 여기에서 그는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축적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剩餘價値率을 상승시키는 傾向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傾向을 明示的으로 마르크스의 확대재생산표식에 導入할 필요가 있다고 루셀부르크는 주장한다. 그런데 그 傾向을 도입하여 마르크스의 再生産表式을 修正하니 그 결과가 〈表 4〉로 나타난 것이다. 즉, 均衡的인 擴大再生産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 2 부분의 자본가들은 자기의 剩餘生産物 中 점점 더 큰 부분을 스스로 소득으로서 消費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個人的 消費의

증대가 아니라 資本價値의 增殖 또는 資本蓄積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 2 부분의 자본가들이 제 3 차 年度 말에 잉여생산물(소비재)의 36%를 자본으로 전환시키기를 거부하고 前年과 마찬가지로 40%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은 이 추가적인 4%의 잉여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를 純粹資本主義社會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룩셈부르크는 파악한 것이다. 勞働者들은 賃金에 해당하는 구매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잉여생산물(소비재)을 購買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매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官吏, 牧師, 教授 등등 「食客」(hangers-on)의 소비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득은 이 추가적인 4%의 잉여생산물이 판매되어야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分析으로부터 룩셈부르크는 제 2 부분의 자본가들은 「資本主義社會의 外部에 있는 購買者들」——즉 非資本主義의 環境에서 독립적으로 구매력을 얻고 있는 구매자들——을 발견하여야 한다고 결론짓게 된다. 이것이 「純粹資本主義社會 안에서는 資本蓄積이 不可能하다」는 그의 주장의 토대이다. 市場擴大의 필요성 또는 非資本主義의 市場의 必要性은 결코 개별자본가의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總資本의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로빈슨, 블리니, 부하린의 解釋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勞働者들의 消費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동자들의 소비가 固定不變이라고 假定하

〈表 5〉 第 2 部分의 先導的 役割에 따른 再生產表式

		C	V	S	W	SC	SV	SK			
第 1 次 年度	I	5,000+1,000+1,000=7,000 .				429	71	500			
	II	1,430+ 285+ 285=2,000 :				141	24	120			
第 2 次 年度	I	5,429+1,071+1,083=7,583 :				423	60	600			
	II	1,571+ 309+ 316=2,196				160	23	133			
第 3 次 年度	I	5,852+1,131+1,165=8,148 :				385	48	732			
	II	1,731+ 332+ 349=2,412 :				180	22	147			
第 4 次 年度	I	6,237+1,179+1,250=8,666 :				316	35	899			
	II	1,911+ 354+ 386=2,651 :				202	22	162			
		$\frac{C}{V}$		$\frac{S}{V}$		$\frac{SC+SV}{S} (\%)$		$\frac{SC+SV}{C+V} (\%)$		$\frac{I_w}{I_w} (\%)$	
第 1 次 年度	I	II	I	II	I	II	I	II	28.6		
第 2 次 年度	5.00	5.02	1.00	1.00	50	58	8.3	9.6	29.0		
第 3 次 年度	5.07	5.08	1.01	1.02	45	58	7.4	9.7	29.6		
第 4 次 年度	5.17	5.21	1.03	1.05	37	58	6.2	9.8	30.6		
第 4 次 年度	5.29	5.40	1.06	1.09	28	58	4.7	9.9			

註 : <表 1>과 同一.

였다는 스위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런데 블리니는 또한 록셈부르크를 過少消費論者로 區分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블리니에 의하면, 록셈부르크는 『資本蓄積』에서 消費財의 수출문제 뿐만 아니라 生産財의 수출문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록셈부르크가 제기한 상품의 實現問題는 소비재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海外市場의 필요성이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는가를 고찰하여야 하기 때문에 블리니의 주장은 정당화되지 못한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확대의 必要性은 제 2 부문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인데, 이것은 록셈부르크가 강조하는 제 1 부문의 先導的 役割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다.

만약 제 1 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폐지하고 제 2 부문의 先導的 역할을 근거로 하여 <表 4>를 再構成한다면 <表 5>와 같이 될 것이다. <表 5>는 제 2 부문의 축적률을 58%로 유지하면서 균형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면 <表 4>에서 제 2 부문의 자본가들이 직면한 問題를 그대로 제 1 부문의 자본가들이 직면하게 될 것인데, 록셈부르크는 이러한 分析을 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제 1 부문의 先導的 役割이 資本主義經濟의 특성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IV. 록셈부르크의 過少消費說의 影響과 評價

록셈부르크는 마르크스의 再生産表式의 假定들을 修正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과소소비설을 提示하였는데, 그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名題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高度化는 제 1 부문의 蓄積增大와 제 2 부문의 蓄積減退를 同伴한다. 둘째, 제 2 부문의 축적감퇴는 제 2 부문의 資本家들이 자기들의 剩餘生産物中 점점 더 큰 부분을 個人的 消費에 充當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目的에 違背된다. 그러나 그들이 축적률을 증대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은 잉여생산물 중 추가로 자본화시킬 부분에 대한 유효수요를 純粹資本主義社會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비재의 市場을 非資本主義的 環境에서 발견해야 한다. 셋째, 자본주의는

스스로 生存할 수 없는 최초의 經濟形態이며, 생존조건으로서 기타의 경제형태들을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는 보편화되려고 노력하지만 보편화되면 붕괴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내재적으로 생산의 普遍的 형태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살아있는 역사에서 볼 때 資本主義는 모순 덩어리이며, 그것의 蓄積運動은 그 모순을 해결함과 동시에 더욱 악화시킨다. 일정한 발전단계에 도달하면 社會主義的 원리의 적용 이외에는 어떤 脫出口도 없게 될 것이다[Luxemburg(1971, p. 467)].

위와 같은 록셈부르크의 命題들은 대체로 다수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繼承되고 있다. 첫째 명제는 투간-바라노브스키,<sup>(1)</sup> 레닌(1977), 林直道(1953), 井村喜代子(1975), 아글리에타(1979) 등등에 의해서도 비록 조금씩의 편차는 있지만 提示되고 있다. 그러나 스위지, 로스돌스키, 데사이 등등은 제 1 부분의 보다 급속한 발전이라는 命題를 拒否하고 있다. 스위지(1968, pp. 181-3)에 의하면, 생산수단의 생산량과 소비수단의 생산량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不變의 관계가 歷史적으로 證明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로스돌스키(1977, pp. 476-7)는 제 1 부분의 보다 급속한 성장은 “공업화의 초기 단계에만 타당하며 자본주의의 一般的 發展法則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스위지와 로스돌스키의 주장은 자본주의의 現實的, 歷史的 發展에 의거하고 있으며 理論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데사이(1974)는 이 명제를 理論적으로 批判한다. 데사이는 매우 올바르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frac{C}{V}$ 의 상승을 도입한 擴大再生産表式을 만드는 과정에서 취한 節次와 假定 때문에 제 1 부분의 보다 급속한 성장은 불가피하였다는 것이다. 제 1 부분의 축적률이 주어져 있고, 제 1 부분의  $\frac{C}{V}$ 가 상승하며, 그리고 표식의 均衡條件을 만족시키도록 제 2 부분의 蓄積率이 조정되기 때문에, 제 2 부분의 蓄積率은 계속 低下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生産財의 생산량 중 제 2 부분과 교환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자본의 有機的 構成의 高度化는 재생산표식에 표현되기 어려운 概念이다. 우선 그 개념은 生産資本의 구성을 표현하는 것이지 商品資本의 구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表式上의  $\frac{C}{V}$ 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리고 유기적 구성의 高度化는 必須적으로 상품가치의 변동을 수반하여야 하는데 재생산표식에서는 商品價値의 變動을 導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再生産表式에 의거하여 사회적 총생산물의 流通過程만을 분석한 것이다[金秀行(1988, 第2部 第2章)].

어쨌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제 1 부분이든 제 2 부분이든 可變資本에 비하여 不變資本이 상대적으로 增大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資本蓄積의 능력은 잉여가치량 또는 이윤량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제 2 부분의 利潤率이 제 1 부분의 그것보다 높아 제 2 부분으로부터 生産財의 需要가 增加한다면 이로 말미암아 제 1 부분의 생산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 1 부분의 급속한 成長은 유기적 구성의 상승에 의거한다기보다는 제 1 부분의 利潤率이 보다 높다는 것에 의거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前提할 수

(1) Tugan-Baranovski의 견해에 대해서는 Rosdolsky(1977, p. 471)를 참조하라.

없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재생산표식에서는 總投下資本이 표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그 表式上的  $\frac{S}{C+V}$ 는 결코 이윤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命題——제 2부분의 잉여생산물 중 자본으로 전환될 부분의 實現不可能性——은 두 개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제 1부분의 선도적 役割에 관한 것인데 이것에 의거하여 록셈부르크는 實現問題를 소비재에 局限시키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산과 개인적 소비 사이의 動態的 關聯에 관한 것인데 록셈부르크는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제 1부분의 선도적 역할에 관하여 록셈부르크(1971, p.127)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적 生産樣式 下에서는

제 1부분이 先導的 역할을 하여 자본축적의 과정 전체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며 제 2부분은 단순히 受動的인 부수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로빈슨, 로스돌스키, 블리니는 제 1부분의 先導的 역할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의 재생산표식의 숫자들은 두 부문에 대하여 완전히 中立的이라는 점을 強調한다. 그러나 그들은 왜 록셈부르크가 마르크스와는 달리 제 1부분의 先導性을 主張하고 있는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록셈부르크는 제 1부분의 先導性을 資本主義社會의 特殊性——즉,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消費財生産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는 것은 資本主義的 生産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계획되는 사회(社會主義社會—인용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제 1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안되며 제 2부분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Luxemburg(1971, p.130)].

그러나 이러한 推論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資本主義的 生産은 인간의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소비재의 생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은 價値增殖을 目的으로 소비재와 생산재를 生産한다는 것이다. 資本主義社會와 社會主義社會 사이의 진정한 差異는 생산의 추진동기가 資本의 價値增殖(또는 利潤獲得)에 있는가 인간의 복지향상에 있는가에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제 1부분이 先導的 역할을 하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제 2부분이 先導的 役割을 한다는 것과는 전혀 相異한 의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目的은 資本價値를 최대한도로 增殖시키는 것이므로, 재생산과정에서 어느 부문이 先導的 역할을 할 것인지는 미리 결정할 수 없으며 두 부문 사이의 利潤率 隔差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 1 부문의 선도적 역할 때문에 록셈부르크는 제 2 부문의 實現問題에 제 1 차적으로 注目한 것이다. 그러므로 블리니(1976, pp. 193-4)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잘못이다.

록셈부르크는 消費財市場 뿐만 아니라 生産財市場에 대해서도 주목하기 때문에 그는 過少消費論者로 간주될 수 없다.

블리니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록셈부르크가 생산재시장의 問題를 제기하게 된 理由는 자본주의적 축적이 제 2 부문의 성장을 저해하며 제 2 부문의 相對的 低成長이 제 1 부문의 成長을 制限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끝으로, 제 2 부문의 잉여생산물 중 자본으로 전환될 부분의 實現不可能性이라는 명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하에서는 生産의 擴大가 동시에 제 1 부문과 제 2 부문의 잉여생산물을 實現하는 유일한 方法이라는 것을 록셈부르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잉여가치의 生産과 實現이라는 統一 안에서 생산이 실현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반대가 아니다. 잉여가치에 대한 자본의 끊임없는 추구는 생산과 실현 사이의 補完的이고 相互依存的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파괴하면서 또한 동시에 資本主義的 經濟秩序를 보다 넓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장시킴으로써 그 통일을 새로운 次元에서 다시 確立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1973, pp. 407-8)는 말한다.

(資本—인용자) 생산과 실현의 統一인데, 직접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過程으로서만 統一되어 있다. ……流通(시장—인용자)은 처음에는 不變의 크기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그것은 생산 그 자체에 의해 확대되는 可變的인 크기로 나타난다. 이리하여 유통은 이미 생산 그 자체의 하나의 要素로 나타난다. 자본은 한편에서는 점점 더 큰 剩餘勞動(剩餘價值—인용자)을 창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은 보다 많은 交換地點을 創造하며…… 자본에 의거한 생산을 번식시키는 보완적인 傾向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은 제 1 부문과 제 2 부문에서 항상 자기의 임금보다 많은 價値와 實物을 生産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靜態的이고 構造的인 관계에만 주목한다면 자본주의경제는 불황이나 붕괴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끊임없이 剩餘價値를 生産하려는 충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의 잉여생산물을 사용하여 생산의 增大, 새로운 산업과 상품의 開發, 새로운 욕망의 創造 등등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生産과 개인적 消費 사이의 動態的이고 發展的인 관계를 파악하여야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내부의 動學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사회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参 考 文 献

- 金秀行, 『資本論研究 1』, 한길사, 1988.
- 林直道, 「再生産と恐慌」, 『經濟評論』, 1953. 1.
- 井村喜代子, 「恐慌論研究の現状と問題點 上」, 『經濟評論』, 1975. 10.
- , 「恐慌論研究の現状と問題點 下」, 『經濟評論』, 1975. 11.
- Aglietta, M., *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New Left Books, 1979.
- Bleaney, M., *Underconsumption Theories: A History and Critical Analysis*, Lawrence & Wishart, 1976.
- Bukharin, N., *Imperialism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edited by K. Tarbuck, Allen Lane, 1971.
- Desai, M., *Marxian Economic Theory*, Gray-Mills Publishings, 1974.
- Lenin, V.I., “On the So-called Market Problem,” *Collected Works* Vol. 1, Progress Publishers, 1977.
- Luxemburg, R., *The Accumulation of Capital* (1913), Routledge & Kegan Paul, 1971,
- Marx, K., *Grundrisse* (1857~1858), Penguin Books, 1973.
- Robinson, J., *Introduction to the Accumulation of Capital*, Routledge & Kegan Paul, 1971.
- Rosdolsky, R., *The Making of Marx's Capital*, Pluto Press, 1977.
- Sweezy, P.,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Monthly Review Press, 1968.